

- 주요 뉴스: 미국 9월 FOMC 개최 0.75%p 인상 예상. 점도표 및 파월 의장 회견에도 관심
 - ECB 부총재, 경기 둔화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불충분.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
 - 노르웨이 총리, EU의 가스 가격 급등 대응에 협력할 계획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위안화 환율은 여타 주요 통화 대비 안정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4.8%],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1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기불안 및 실적 불확실성 등으로 2개월 만에 최저
 유로 Stoxx600 지수는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2.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월 FOMC 앞두고 매수세 강화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물가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6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0.5% 상승, 한국 CDS 상승

		9/16일	9/9일	전주말대비			9/16일	9/9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73.3	4,067.4	-4.77%	국채 금리 10y	미국	3.45%	3.31%	14bp
	유럽	408.24	420.37	-2.89%		독일	1.76%	1.70%	6bp
	중국	3,126.4	3,262.1	-4.16%	CDS 5y	한국	33bp	31bp	2bp
	일본	27,568	28,215	-2.29%		중국	75bp	66bp	9bp
	한국	2,382.8	휴장	-0.06%	위험 지표	EMBI+	433	418	15bp
환율	달러지수	109.76	109.00	0.70%		VIX	26.30	22.79	15.40%
	유로화	1.0016	1.0042	-0.26%		WTI유	85.11	86.79	-1.94%
	엔화	142.92	142.47	-0.31%	원자재	구리	356.1	358.1	-0.56%
	위안화	6.9870	6.9265	-0.87%		금	1,675.1	1,716.8	-2.43%
	원화	1,388.0	휴장	-0.5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9월 FOMC 개최, 0.75%p 인상 예상. 점도표 및 파월 의장 회견에도 관심**
 - 금주 9/20~21일 FOMC가 열릴 예정이며,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0.7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전방위 확산 신호가 발신
 - 일부 투자자들은 1.00%p의 금리인상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실제로 최근 연준의 많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0.75%p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
 - 9월 FOMC 이후 계획된 기자 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높은 금리의 장기간 지속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향후 특정 시기에 금리인하 가능하다는 언급을 자제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치 가능하다는 발언에 나설 소지
 - 한편 연준의 점도표(dot plot) 공개도 예정. 이를 통해 연준이 예상하는 향후 연방기금금리 목표 수준은 6월(연말 3.4%, 내년 말 3.8%) 대비 상향 조정이 확실시. 최근 선물시장에서는 연방기금금리가 연말 4.20%, 내년 3월 4.50%를 기록한 이후 내년 말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
 - 실업률 전망치는 각각 연말 3.9%, '23년 4.3~4.5%, '25년 4.0% 등이 제시될 가능성. 인플레이션 전망치의 경우 금년과 내년 모두 상향 조정이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기는 '25년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블룸버그 설문조사, 연방기금금리는 연말 4.0%에 이를 전망**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9월 FOMC에서 0.75%p 금리인상이 결정되어 연방기금금리는 3.00%~3.2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이후 연말에 4.00%까지 상승하고 내년에도 지속되다가 '24년에 3.6%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
- **ECB 부총재, 경기 둔화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불충분.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
 - 데 퀴도스 부총재는 경기둔화가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수요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2차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측면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 러시아 대통령, EU 가스 공급 재개를 원한다면 노드스트림 II 관련 제재 해제할 필요

- 푸틴 대통령은 노드스트림 II 관련 제재를 해제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 최근 에너지 위기는 소위 'the green agenda'에 의한 것이며,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

■ 노르웨이 총리, EU의 가스 가격 급등 대응에 협력할 계획

- 스토레 총리는 가스 가격 급등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스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다만 이를 위해 EU와 구체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위안화 환율은 여타 주요 통화 대비 안정적

-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전망 등으로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10% 하락했지만, 이는 다른 주요국 및 신흥국 통화 가치의 하락률 대비 낮다고 지적.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이를 통해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8월 소매매출, 6개월래 최대폭 증가. 자동차 판매 호조 및 기저효과 등에 기인

- 해당 매출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5.4%로 2월 이후 최고 수준. 코로나 팬데믹 관련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자동차와 음식 판매 등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 반면 가구 등은 오히려 전년동월비 판매가 감소

■ 일본 재무상, 과도한 환율변동 지속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

- 슌이치 재무상은 최근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24년 만에 최저 수준인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다만 엔화 약세는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

■ 호주 중앙은행 총재, 연속적인 인상 등으로 금리는 정상 수준에 근접

- 로우 총재는 정책금리가 정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언. 다만 정책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요구되지만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9 현지시각 기준)

- 독일 중앙은행 월간보고서,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임금과 물가의 관계, 과거 사례는 최근 주장과 상이 - WSJ

(Do Wages Drive Prices, or Vice Versa? The Answer Matters for Interest Rates)

-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미국과 유럽 기업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임금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
- 반면 '20년 뉴욕 연은은 과거 24년간 제조업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도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분석. 이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노동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 다만 '21년 이후부터는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주장도 존재

■ 아시아 신흥국 경제, 증가한 외환보유액 등은 향후 전망에 긍정적 요인 - 블룸버그

(Stagflation-Free Asian Markets Are Leaving Taper Tantrums Behind)

- 금년 달러화 대비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률은 엔화 및 유로화 대비 제한적. 이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외환보유액 확대에 기인. 최근 외환보유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19년 수준을 상회
- 원자재 가격 충격이 크지 않은 것도 경제전망에 플러스 요인.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그 동안 경제전망이 부정적이었으나,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8월 산업생산과 소매매출 등이 예상과 달리 증가하며 향후 경제회복 가능성을 시사

■ 각국 중앙은행, 달러화 강세에 따른 저성장 및 고물가로 정책 결정의 어려움에 직면 - WSJ

(Dollar's Rise Spells Trouble for Global Economies)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국내 지지 약화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Russian nationalist pressure on Putin)

■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당국의 과감한 신뢰회복 노력 부재 시 지속될 우려 - WSJ

(China's Housing Market Is Still on Life Suppor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